

## 차세대 광케이블망 개발 착수

### 보잉 등 4개사

美보잉 등 4개사는 국방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다음세대 고속플라스틱 광케이블망(HSPN)을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보잉외에 제네럴모터스(GM)의 관련회사인 패커드 휴즈 인터커넥터, 계측기 제조업체인 하니웰, 광케이블 개발회사인 보스턴 옵티컬 파이버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은 국방부로부터 5백50만달러를 지원받아 2년간에 걸쳐 개발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광케이블은 기존의 유리 광케이블에 비해 가격이 싼 반면 정보전송거리가 짧고 전송용량도 작은 결점이 있어 현재 용도는 센서나 조명등에 쓰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구성된 컨소시엄은 유리 광케이블망

에 필적하는 전송용량을 가진 고속 플라스틱 광케이블망을 개발해 다음세대 고속정보통신망 등 통신분야에까지 용도를 확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플라스틱 광케이블의 전송용량은 1km당 5MHz(1M는 1백만)이나 이를 2GHz(1G는 10억)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 중국 석유화학업계 중국수출에 박차

### 중국, 공급부족 현상으로

석유화학업계가 최근 對중국 유화제품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유화제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다음달부터 나프타분해(NCC) 공장의 정기보수에 들어가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전반적인 수출호조와 내수부문의 수요증가로 최근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對중국수출의 경우 물량 늘리기보다는 가격 높이기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木林産業은 현재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으나 국내 NCC업체들의 정기보수가 집중된 4~5월에 판매를 늘리면서 재고부족이 심화돼 수출주문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大林産業은 중국과의 장기 계약을 맺은 에틸렌을 제외한 나머지 합성수지의 경우 가격을 종전보다 10~20% 올려 주문을 받는 등 스파트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홍콩지사 와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중국 지사를 통해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 범용성 수지 수출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술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고정거래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럭키도 최근 내수부문에서의 수요증가로 재고가 부족한 설정으로 對중국수출의 경우 물량확대보다는 가격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PE(폴리에틸렌)의 경우 8월 선적분 물량의 對중국 수출가격은 종전보다 20% 이상 올려받고 있다. <♣>